

**포스트모던 미술관 건축의 확장된 건축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독일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과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Expansionist Architectural Concept in Post-Modern Museums

- focused on Neue Staatsgalerie Stuttgart and Städtisches Museum Abteiberg Mönchengladbach in Germany -

김명옥 / Kim, Myoung-Oak

Abstract

During the boom of museum building in the 1970s-80s two museum were erected in Germany. They are James Stirling's Neue Staatsgalerie Stuttgart and Hans Hollein's Städtisches Museum Abteiberg Mönchengladbach. These two museums share the following point of similarity: Stirling's Neue Staatsgalerie Stuttgart and Hollein's Städtisches Museum Abteiberg Mönchengladbach both manifest the conditions of the times in light of their respective cities' local characters and historical contexts without being bound to traditional formality.

Stirling and Hollein attempte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museum as a city in miniature." Taking into account the two museums's territorial characteristics of being situated on a slope, both Stirling and Hollein made the walker to pass through their building complex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a public square within them. As a result, the museums are not just two large buildings but are architecture composed of a collage of various structures.

Stirling's architecture employs the method of attaching additional elements on top of basic constituents, which is suggestive of the historical fragment from Shinkel's Altes Museum. On the other hand, Hollein applies a collage-style method as if he were doing urban planning, maintaining the distinctiveness of each of the various forms and materials of buildings.

The object-style buildings of the two museums actively demonstrate the contrast of double meaning to represent the ambiguous and multif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times. Stirling explores the theme of opposition and coexistence in his Neue Staatsgalerie Stuttgart by placing a series of opposing concepts, such as the past and present and history and technology, in one space. Thereby, the contradiction and its appeal are manifested. Hollein made use of the visual illusion and contradiction in alluding to the irony of the modern reality induced by nature and culture and history and technology.

For the above reasons and methods, James Stirling's Neue Staatsgalerie Stuttgart allowed the penetration of art into daily life and became the general public's favored museum for its free and unrestrained environment. Likewise, Hans Hollein's Städtisches Museum Abteiberg Mönchengladbach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seum function as it an expression of art in the form of a complex piece of sculpture on its own.

키워드 : 스투트가르트 미술관, 뮌헨글라드바하 미술관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 미술관 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미술관이란 "예술에 관한 수집품등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자료, 표본 등을 각종의 방법으로 보유 하고 연구하며, 일반 공중의 오락과 교육을 위하여 공개전람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이 공중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항구적 건물" 1)로

* 정회원,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실내디자인 전공) 전임강사

** 본 연구는 1998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김원외, 서울 시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서울특별시, 1986, p.44

청하고 있다. 또한 서상우씨에 의하면, 초기 미술관이 “귀족사회의 사유 형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미를 띠기 시작하고 17세기 이후 공공성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기 시작되었다.”²⁾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구 선진국의 미술관은 각국의 적극적인 문화 사업 지원에 힘입어 급진적인 양과 질의 팽창의 시기를 맞이한다. 더욱이 다변화되는 20세기의 포스트모던 상황 속에서 사회, 문화적 의미가 예술 전반에 있어 확대 해석됨에 따라서 현대미술관은 문화 전반의 광범위한 사회 교육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술관을 찾는 대상층도 전문층에서 일반 대중층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이 20세기 서구 선진국의 미술관 건축이 예술품의 보존과 전시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시킬 뿐아니라 변화하는 사고와 정신 그리고 문화를 반영하며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현실은 현대미술관 건축이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설치미술과 같이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화되는 현대미술의 적극적 사고에 비해 이를 수용할만한 현대미술관이 국내에 드문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80년대 독일의 미술관 건축으로 건립 당시 건축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제임스 스티어링(James Stirling)과 마이클 윌포드(Michael Wilford)의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Neue Staatsgalerie Stuttgart)과 한스 홀라인(Hans Hollein)의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Städtisches Museum abteiberg Mönchengladbach)의 건축설계 과정에 있어 확장된 의미의 건축개념으로 두 미술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의 현대미술관 건축설계의 접근방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스튜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과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은 (장소에 대한 고려에 있어) 현 시대상황을 환경적 맥락 안에서, (개념에 있어) 전통적 사고와 격식에 매이지 않고, (표현에 있어) 자유스럽게 표현한 미술관으로, (결과적으로)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포스트모던 건축이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미술관 작품들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일반적으로 건축설계 과정은 장소(site)에 대한 고려, 건축개념 설정, 개념의 건축적 표현, 그리고 디자인 결과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두 미술관의 경우 이러한 설계과정에 있어 확장된 의미의 건축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과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의 건축설계과정에서 확장된 의미의 건축개념으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을 논의함에 있어, 첫째, 확장된 장소(사이트, site)의 의미로 사용된 ‘환경과의 맥락성’, 둘째, 건축개념에 확장된 의미가 내포된 ‘작은 도시로서의 미술관’, 셋째, 확장된 건축 표현방법으로 사용된 ‘이중적 대조법’과 ‘플라쥬 기법’, 넷째, 미술관 개념의 확장

인 ‘일상적 미술관’이란 주제로 두 미술관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스튜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과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의 개괄적인 설명은 두 미술관이 이미 많이 알려진 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으며, 포스트모던 건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이미 타 연구에서 많이 되어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분석대상이 되는 두 미술관은 참고가 될 문헌과 실사를 통하여 조사되었다.

2. 본론

2.1. 환경과의 맥락성

‘맥락성’이란 특정한 주제에 관한 주변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경우 ‘환경과의 맥락성’이란 특정한 장소의 지역적 상황 뿐아니라 자연적, 역사적, 시대적상황까지 고려된 포괄적 의미에서의 환경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으로 무질서해지는 도시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특정한 지역에 장소성을 부여해주는 요인이 된다.

스티어링의 국립미술관 신관이 존재하는 스투트가르트시는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부분 폐허가 되었고 국제주의 양식의 기초를 이룬 바이젠호프(Weissenhof) 주택단지³⁾로 인해 국제주의 양식의 표본이 된 역사적 상황과 전후 무분별한 도시재개발로 인해 옛 건물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가능한한 기존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로 짓는 건물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국립미술관 신관이 건립된 곳의 지역적 상황은 국립극장과 옛 궁정의 일부인 슈로스가르텐(Schloß & Garten)을 마주보며 어번(Urban)가 뒷편의 주택가를 배경으로 한 경사지로서 전쟁으로 인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신고전주의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이었다.

스튜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의 주변환경과의 맥락성은 구 미술관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구 미술관의 형태와 배치를 참고하여 신미술관에서 ㄷ자 형의 평면을 같은 방향으로 배치 하였다. 구 미술관과 비슷한 스케일 비슷한 양식(신고전주의 양식이 주되게 사용됨) 같은 재료의 돌을 같은 방향으로 신미술관에 세심하게 적용시켜 주위환경과의 통일감을 이루게 하였다.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은 중앙의 로툰다(원형 조각전시장)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나 중앙의 위계상황을 거리에서는 쉽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주어진 자연조건과의 맥락성은, 뒤편 주택가와의 경사진 대지조건

3) 1920년대 당시 건축 경향이 비슷한 미즈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 한스 샤론(Hans Scharoun) 등 건축가의 현대적인 건축개념을 표현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집합 주택단지를 말한다.

2)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1995, p.14

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단의 차이가 있는 넓은 테라스를 만들어 어느 곳에서는 미술관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점과<사진 1> 그 지역의 경사진 대지조건을 도시계획적으로 활용하여 미술관이 주택가의 정원 역할을 할 수 있고, 숲로스 가르텐이 미술관에서의 정원 역할을 하도록한 점에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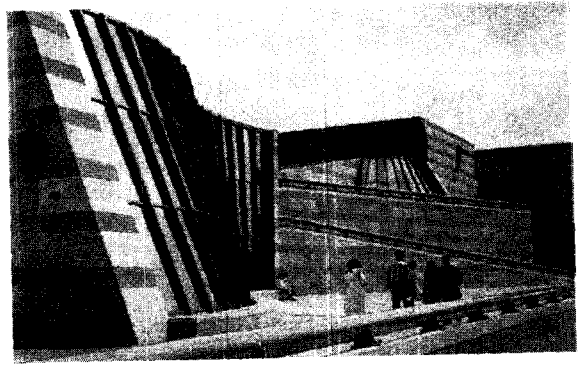
홀라인은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에서 부근의 중세성당과 정원을 공유하고 있고, 길 건너의 중학교, 문화센터와는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주위환경의 지역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이용하였다.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의 자연과의 맥락성은 건물과 대지와와의 관계와 조경에서 잘 나타난다. 건물배치와 조경에 있어 기존 경사를 이용한 결과 여러층으로 된 등고선 모양의 정원과 테라스가 형성되어 전체의 조경은 우리나라의 밭과 같은 목가적인 친근감을 주며 이로인해 다양한 재료의 건축물들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느낌이 든다.<사진 2> 또한 조경에 사용된 자유스러운 곡선의 벽들에서 오는 느낌으로 인해 그 지역이 중세 성당과 관계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은 각 건축물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하나의 조경 속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전체적인 총체감을 보여준다.⁴⁾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의 건물들로 인해 서로간의 관계에서는 현대의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며 조화보다는 대립의 측면이 강조되나, 대지와와의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연과 융화된다.<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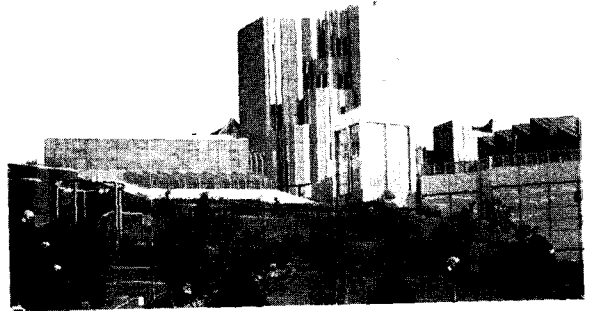
2.2. 작은 도시로서의 미술관

콜린 로우(Colin Rowe)는 도시를 역사적 단편들을 모아 놓은 미술관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다.⁵⁾ 반면, 스틸링과 홀라인은 확장된 의미의 미술관 개념을 도시적 특성에 결부시켜 미술관을 도시의 반영이란 차원을 넘어 '작은 도시 자체'로서 해석하여 현대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표현하려 하였다.

스틸링이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을 작은 도시로 해석한 점은 중앙의 로툰다(야외 조각전시장)에 가장 잘 표현된다. 유럽의 도시에서 여러개의 보행로가 교차하는 곳에 반드시 존재하던 광장(plaza)의 개념을 미술관의 중앙에 적용시켜 여러 방향으로부터의 보행자를 흡수하도록 하여 야외 조각전시장을 미술관과 공중이 만나는 곳으로 공공장소화 하였다. 결과적으로 야외 조각전시장은 교통의 혼잡함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어 도보자가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보자의 외부공간이 되어 거리와 같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사진 3>경사진 대지조건을 이용한 방법에서도 스틸링의 도시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 경사진 대지를 몇 개의 다른 층의 플랫폼(platform)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플랫폼의 관람객들은 서로 보고 보여지는 관계가 된다. 즉, 수직적인 공간 구성은 몇 개의 다른 레



<사진 1>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입구테라스



<사진 2> 뮌헨글라드바하 미술관 전체 건물군

벨(level)의 층에 의해 겹쳐지고 이것은 내외부의 램프(ramp) 및 계단으로 연결되어 활성화된 도시의 모습을 연출한다.

1층 로비 또한 실내에서 도시의 광장 역할을 하는 곳으로 기다리거나 밖을 바라보거나 만남의 장소로 쓰여진다.<사진 4>

홀라인의 뮌헨글라드바하 미술관에서는 정상의 언덕 위에 물려있는 건물들을 작은 도시의 구성요소들로 해석할 수 있다. 작업장과 같은 전시장 건물, 고층건물 같은 관리실과 도서관 건물, 사찰 같은 입구의 작은 파빌리온, 그리고 어떤 용도에라도 맞을 듯한 개성이 강하지 않은 임시전시실 건물들이 서로 다른 양식과 서로 다른 건축 자체 그리고 서로 다른 용도로 테라스의 광장 주위에 자리 잡고 있다. 미술관의 관리빌딩은 독립성이 강조된 고층 빌딩형으로 과도치는 듯한 여러겹의 조경을 수직 방향으로 세워 놓은 듯하다. 관리용 빌딩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임시전시실 건물은 언덕의 윗부분에 위태롭게 돌출되어 있어, 톱니형 지붕을 가진 사각형의 전시건물군과 대조를 이루며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⁶⁾ 그리고, 자그마한 사찰 같은 건물은 테라스와 언덕의 경계 역할을 한다.<사진 5>

이같이 홀라인의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은 서로 다른 양식, 서로 다른 건축 자체, 서로 다른 용도로 된 독립적인 건물들로 이루어져, 그 지역의 대지조건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구조에서 자연

4)Klots, Heinrich, 현대건축론, 양동양 역, 기문당, 1994, p.278

5)Rowe, Colin and Koetter, Fred, Collage City, The MIT Press, Cambridge, MA., 1983, p.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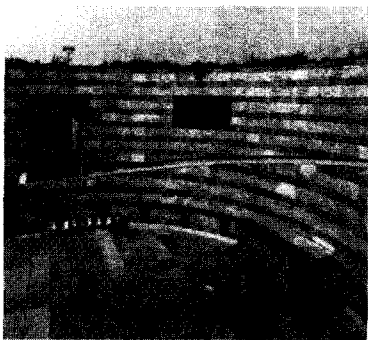
6)Klots, Heinrich, 앞의 책, p.279

발생적으로 발전해온 것처럼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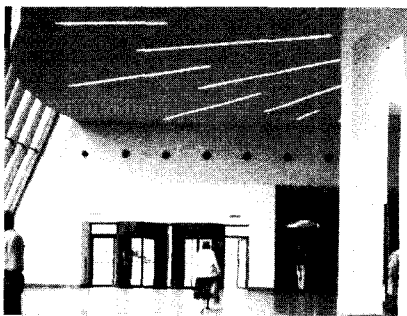
실내에서도 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 공간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정상의 광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건물들이 모여 있듯이, 최저층의 실내에서도 대리석으로 마감된 광장을 중심으로 전기와 가스설비영역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사진 6> 그리고, 시청각실, 식당, 강의실, 미술실기실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같은 구역으로 모아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엇갈리게 분리시켜 놓아 실내에서도 도시에서와 같이 여러 활동이 교차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홀라인의 뮌헨글라드바흐 미술관의 실내는 스티어링의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의 실내보다 더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뮌헨글라드바흐 미술관에서의 관리동, 전시동, 임시전시동의 고유한 외형의 독립성과는 별도로 미술관 실내에서는 로비의 영역이 관리타워의 도로 층에서 겹치며, 예술품 소장고가 전시 건물의 정원 레벨에서 겹쳐진다. 홀라인은 미술관이라는 것이 미술관 내에서의 기능에 따라 단일의 형태로 분리되는 것 이상의 도시에서와 같은 고도의 복합성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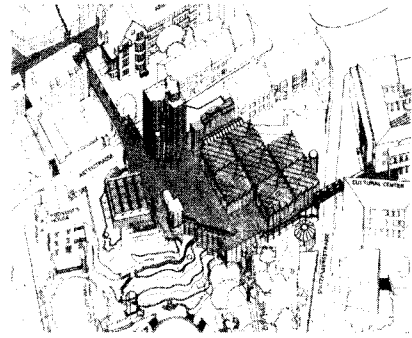
뵘에 의하면, “한 도시의 축소판으로서의 뮌헨글라드바흐 시립 미술관은 고대 그리스 도시 아크로폴리스의 현대적 이미지”⁷⁾라고 하였다. 미술관 건축물들의 마주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균형잡힌 배치방법, 등고선 형태의 정원과 옹벽으로 인한 폐허의 느낌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회화적 효과로 인해 뮌헨글라드바흐의 시립미술관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연상시킨다.



<사진 3>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조각전시장



<사진 4>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내부로비



<사진 5> 뮌헨글라드바흐 미술관 엑스노메트릭



<사진 6> 뮌헨글라드바흐 미술관 실내내부

2.3. 이중적 대조법

‘이중적 대조법’이란 이중적 의미 해석이 가능한 현대사회를 암시하는 하나의 표현방법으로 일련의 반대되는 개념의 특징을 대조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로인해 그 특징들이 더욱 부각되기도 하며 때로는 상이한 개념의 공존으로 모순과 매력의 드러나기도 하는 복합성을 보여준다.

스튀트가르트의 국립미술관 신관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이중적 대조법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념비적으로 느낄 만큼 강한 존재성이 있으나 매우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이기도 한 이중적 대조법을 보여준다. 스티어링에 의하면, ‘기념비적(monumental)’이란 단어는 건물의 외적인 규모보다는 건물의 ‘존재성(existence)’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며⁸⁾ 개념상 원형 조각전시장이 기념비성이 강한 공간이나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성격으로 인해 그곳은 권위적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것은 스티어링이 관람객에게 미술관이라는 확실한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와 함께 어떤 출입구에 들어왔다는 공식적 느낌없이 편안하게 미술관에 접근하게 하려는⁹⁾ 이중적 의도의

7)Pehnt, Wolfgang, Hans Hollein Museum in Mönchengladbach, Fi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Frankfurt am Main, 1986, p.45

8)Stirling, James, The Monumentally Informal, GA Document 11, A.D.A. Edita Tokyo Co., Ltd., Tokyo, 1984, p.6

9)Stirling, James, 앞의 책, p.6

결과라 하겠다.

이중적 대조법은 미술관에서 과거와 역사를 느끼게 하는 그라니트(granite)로 된 석재의 무거운 분위기와 카노피, 난간, 엘리베이터의 강한 색채와 형태의 대조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클로츠에 의하면, 역사화시킨 건물 본체에 현대적인 요소를 대조시킴으로써 극적 효과를 기대한 의도였다고 한다.¹⁰⁾ 그것은 궁극적으로 과거와 현재, 역사와 기술의 대립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원형 조각전시장은 쉰켈(Karl Friedrich Schinkel)의 알테스(Altes) 미술관¹¹⁾을 상기시키는 과거와 역사의 은유이며, 하이테크(hi-tech) 요소는 현재 즉 기술적 측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의 원형 조각광장은 과거 판테온이나 쉰켈의 알테스 미술관의 원형 로톤다를 연상시키나 들어와보면 그 공간은 실내가 아닌 외부의 보이드(void) 공간으로 되어 있어¹²⁾ 이중성의 모순도 함께 보여준다.

이중성의 표현은 시각적인 축과 실질적인 진입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시각적으로는 배경이 되는 ㄷ자형의 건물 앞의 중앙 부위에 위치한 원형요소를 중심으로 주된 축이 형성되나, 사실상의 동선은 원의 방향이나 대각선 방향으로 돌아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홀라인의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에서도 이중적 대조법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뮌헨글라드바하 미술관은 건물들의 각기 다른 형태와 재료로 인해 이질감을 보여줌과 동시에 폐허의 느낌으로 인해 대지의 일부이며 “조경의 부속물”¹³⁾로서 자연히 생성된 것 같은 친근감을 동시에 표현한다. 매끄러운 철의 질감에서 오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와 무너져버린 벽돌의 느낌에서 오는 과거지향적인 분위기도 동시에 공존하게 하는 이중적 대조법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의 각기 다른 형태의 건물들은 이질적 마감재와 색채로 개별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오브제 형태로 이중적 대조를 이룬다. 속세적인 것(네온, 메탈)과 종교적인 것(입구의 사찰 같은 파빌리온), 기하학적인 것(전시실 건물)과 자유스러운 것(곡선의 정원, 관리동의 정면), 거친 것(벽돌)과 매끈한 것(메탈, 반사유리), 옛것이 된 것(폐허 느낌의 조경)과 새로운 것(새로운 느낌의 메탈 건물들)과 같은 대조되는 것들이 만나 이중성을 강조한다.<사진 5>

2.4. 폴라쥬 기법

조형예술에서의 폴라쥬란 웹스터(Webster) 사전에 의하면, “신문, 천, 말려서 누른 꽃 등의 오브제를 상징적, 암시적 효과를 위해

표면에 붙이는 예술의 형태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구성 또는 포토몽타주(photomontage)에서와 같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부분들의 집합”¹⁴⁾이라 한다. 또한 볼프강 페흐트(Wolfgang Pehnt)에 의하면, 폴라쥬는 복잡한 현대 생활의 예술적 표현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체험 소재의 확장으로서, 현실의 표상으로서, 모든 것과 개개의 것의 거대한 연관성에 대한 암시로서, 우연히 발견한 단편으로 세계를 인지하며 이러한 단편으로 세계를 묘사한다고 한다.¹⁵⁾

조형예술 분야에서 폴라쥬의 기법이 예술작업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건축분야에서 폴라쥬라는 것은 대부분 역사의 부산물로서 생긴 것이었다. 기존 건축물의 의미와 사용이 변화됨에 따라 건물이 때로는 붕괴되고 때로는 개보수가 되어져 결국 남아 있는 부분들이 도시에서 폴라쥬되었다. 이같이 폴라쥬라는 것은 건축 역사에 있어 의도적이라 할 수 없는 작업방식이었다. 그러나, 건축에서 폴라쥬라는 공공연한 방법론이 제기된 것은 60년대에 들어와 콜린 로우(Colin Rowe)와 프레드 쾨터(Fred Koetter)의 폴라쥬 시티(Collage City)에 의해서라 하겠다. 그들은 건축가가 현존하는 콘텍스트의 단편적 파악을 통해 다원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기억과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략으로 판단하였다.¹⁶⁾

포스트모던 건축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단편적이고 절충적인 성격이 두 미술관의 경우 폴라쥬 기법으로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은 신고전주의의 미술관 건물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단편 요소들의 폴라쥬라 하겠다. 이 단편들은 개념으로 보면 복잡한 도시생활의 단편이기도 하며, 건축사적으로 보면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단편이기도 하며, 스투트가르트 시에 존재하는 건축물들의 단편이기도 하며, 미술관의 기본이라 할 수 요소의 단편이기도 하며, 크게 보면 순수한 형태들의 조합이기도 하다.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 전체의 공간 구성은 크게 ㄷ자형의 전시건물, 중앙의 원형 조각전시장, 입구의 파상형 홀 그리고 긴 램프와 중앙의 로톤다를 휘감고 도는 보행공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몇 개의 직육면체, 원통, 대각으로 놓여진 곡선 및 직선 등의 추상적 형태로 단순화되어 폴라쥬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사진 7>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은 건축가의 의도적인 건축 역사의 폴라쥬이기도 하다. 스티어링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쉰켈의 알테스 미술관으로부터 미술관 건축의 원형을 삼아 신미술관 평면의 기본으로 삼았다고 하며¹⁷⁾, 입구홀의 구부러진 벽체는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롱샹교회(La Chapelle de Ronchamp)의 벽에서, 전시장 건물 외벽의 처마는 샹디가(Chandigarh)의 대립원 벽체의 처마

10)Klots, Heinrich, 앞의 책, p. 282

11)스티어링이 ‘The Monumentally Informal’ 이란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의 원형으로 삼은 1830년 베를린에 완공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술관으로 그 당시 유럽 최초의 공공미술관 중의 하나였으며 중앙의 돔과 비례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함.

12)Stirling, James, 앞의 책, p.6

13)Klots, Heinrich, 앞의 책, p.279

14)_____,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CD, Zane Publishing, Inc. U.S.A.

15)Pehnt, Wolfgang, 앞의 책, p.50

16)Rowe, Colin and Koetter, Fred, 앞의 책, p.149

17)Stirling, James, 앞의 책,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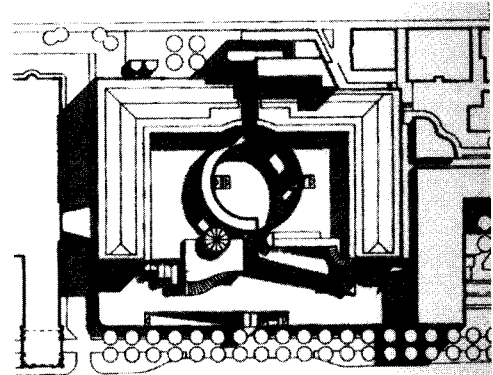
에서, 행정동의 외벽은 라로슈주택(Villa la Roche)에서 인용하여¹⁸⁾ 폴라주 하였다. 그밖에 뽕뽕두 센터(Centre Pompidou)에서 환기통의 형태를 인용하여 환기통과 램프(ramp)의 난간에 적용하였으며, 그것을 발전시켜 엘리베이터의 내부 부품을 그대로 노출시켜 하이테크(hi tech) 표현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의 현관 카노피의 형태와 색채, 구성과 비례는 구성주의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또한,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은 스텔링 자신의 건축 작품의 폴라주이기도 하다. 극장 입구 휴게실의 거대한 버섯형 기둥은 스텔링의 올리베티 연수원에서 따온 것이다. 박스형의 배정 역할을 하는 2차의 메스에 전체 구성상 중심 역할을 하는 뚫린 원통과 관통하는 통행로의 선적구성과 색상으로 강조된 디테일로 각 오브제들은 독립성을 가지며 대립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어긋난 듯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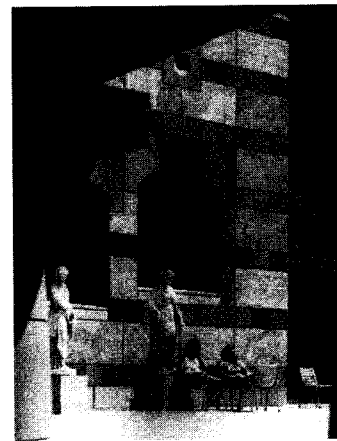
결국,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의 조형성은 다양한 사고와 형태의 폴라주에 기인하였으며, 폴라주로 인해 건축의 미적 측면이 되살아나고 그로 인해 건축과 미술사의 다양한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었다.¹⁹⁾

한스 홀라인의 뫼헨글라드바흐 시립미술관은 이중적 의미의 폴라주이다. 그것은 동시에 계획되어 생성된 부분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여 세월의 변화에 따라 자연히 생성된 듯이 보이게 하는 가상의 폴라주²⁰⁾임과 동시에 주변 상황으로부터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며 주변상황이 사실적으로 반영된 사실적 폴라주²¹⁾이기도 하다. 홀라인의 뫼헨글라드바흐 시립미술관은 스텔링의 국립미술관 신관보다 더 복잡적이다. 그것은 뫼헨글라드바흐 시립미술관의 폴라주 기법이 이중성 자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링의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의 폴라주 방법은 알테스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기본개념 위에 추가적인 것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폴라주한 것이나, 홀라인의 뫼헨글라드바흐 시립미술관의 폴라주 방법은 각 건물에 모순되는 성격을 집어넣어 각각의 건물이 대립되는 의미와 형태를 가진 채 쌍을 이루는 방법으로 폴라주하였다. 이 모순들은 이차적인 특징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복합성에 포함되어져 뫼헨글라드바흐 시립미술관에서는 통일감보다는 이질 요소

들이 뒤섞여 충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적 건물의 오브제들은 이중적 의미를 띠며 폴라주되고, 이 폴라주라는 순수미술적 접근의 표현방법으로 인해 뫼헨글라드바흐 미술관 건축은 조형예술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진 7〉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배치도



〈사진 8〉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조각전시장

2.5. 일상적 미술관

‘일상적 미술관’이란 의미는 미술관이 권위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대중의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것으로 ‘열린’ ‘개방’의 의미를 내포한다. 최근 학문 및 예술의 분야는 점차 일상적이고 자유스러운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대중과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

스튜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이 타미술관의 가장 큰 차별화가 되는 것은 개관 6개월 만에 백만의 관람객 기록을 보이는 관람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미술관으로 미술의 저변화에 기여한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두가지 이유는, 첫째, 어떤 방향에서도 미술관으로서의 진입이 가능한 점과, 둘째, 미술관의 일상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보행자는 옛 유럽 도시를 거니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은 보행자들에게 야외 조각전시장을 거치는 지름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미술품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예술을 거리로 침투하게 함으로써 예술의 일

18) Sudjic, Deyan, 현대건축가사리즈, 노만 포스터, 리차드 로저스, 제임스 스텔링, 김인철 역, 집문사, 1996

19)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단편의 폴라주이기도하여, 스투트가르트 미술관을 통해 건축사에서의 여러 양식, 즉, 신고전주의, 구성주의, 근대, 레이트모던, 이집트, 로마네스크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미술관 신관에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낭만주의 작품은 전시하고 신관에는 20세기의 미술품을 전시하므로 결국, 미술관을 통해 건축사와 미술사의 다양한 양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임.

20) 뫼헨글라드바흐 시립미술관의 건물들은 같은 기간에 설계되고 시공되었으나 이질적 재료와 이질적 형태로 각기 다르게 처리되어, 마치 다른 시점에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어진 느낌으로 인해 사실과는 다른 폴라주의 의미임.

21) 이질적 재료와 형태의 건물로 인해, 중세교회와 정원이 있는 역사적 지역에 주변상황과 통일감을 이루지 못하여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등 주변상황이 사실적으로 반영된 폴라주는 의미임.

상생활로의 접근을 가능케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외부 조각전 시장은 유럽 도시의 플라자(plaza)와 같이 벽으로 둘러 쌓여져 있어 조각품 감상과 함께 햇볕을 즐기며 독서와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게 되었다.<사진 8> 미술관을 방문한 목적이 교육적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기본전환을 위해 찾을 수도 있다는 현대미술관의 오락적 측면을 인정하였다.

홀라인의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 실내에서도 일상성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홀라인은 미술관의 전통적 실내공간 구성방법이었던 전시공간과 기타공간의 기능적 공간구분을 지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객집약적 공간들을 분산시킴으로써 관람객이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한 미술관을 오가다 우연히 예술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예술의 일상화의 개념을 유도하였다. 홀라인은 미술관이란 것이 단지 예술품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장소 이상의 관람객의 일상적 활동도 포함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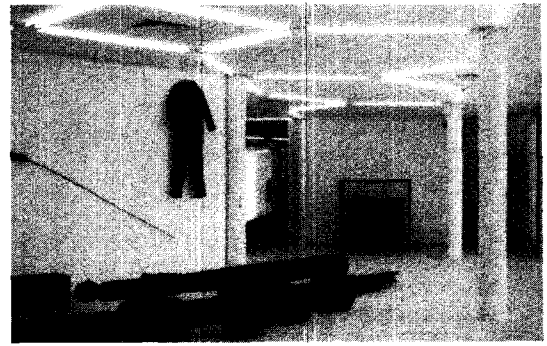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의 전시공간에서도 일상성의 개념을 볼 수 있다. 지극히 정적이야 할 전시공간에는 사선의 조명과 코너의 출입구를 이용하여 사선의 개념을 도입하고<사진 9>, 비전시공간 부분에는 대담한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여 미술관에서의 활동성을 유도하였다. 또한 노출 형광등과 네온 등 현대의 일상에서 흔히 쓰여지는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미술관을 만들었다.<사진 10>

3.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과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의 유사성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과 뮌헨글라드바하의 시립미술관은 환경과의 맥락성을 추구하고, 미술관을 작은 도시로서 생각하여 미술관 개념의 확장을 꾀하였으며, 이중적 대조법과 플라쥬 기법을 건축 표현방법으로 사용하여 건축을 조형예술화 하였다.



<그림 9> 뮌헨글라드바하 미술관 소전시실 입구



<그림 10> 뮌헨글라드바하 미술관 전시실

결과적으로 두 미술관은 자유스럽고 일상적인 이유로 관람객이 좋아하는 미술관이 되었다. 이상 두 미술관의 건축 설계과정에서 확장된 의미의 건축개념으로 나타난 다섯 가지 유사성의 특징을 도표로 분석해보면 <표 1>과 같다.

| 미술관 특성 |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 |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 |
|--------------|---|--|
| 환경과의 맥락성 | -구미술관과 비슷한 스케일과 형태/ 같은 종류의 석재 사용 -경사진 대지조건을 이용한 층을 이루는 테라스 -거리에서는 인지가 불가능한 원형 조각전시장 | -인접한 중세교회와 정원 공유 -중학교, 문화센터와 구름다리로 연결 -경사진 대지조건을 이용한 층을 이루는 테라스와 정원 -자연과의 융화 |
| 작은 도시로서의 미술관 | -광장 개념으로서의 야외 조각전시장 -보행자가 미술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술관을 공공장소화한 점 -여러 층의 플랫폼으로 인한 활기있는 도시의 모습 -실내 로비의 광장 역할 | -도시 전체와 같은 다양한 모습 -광장과 여러 갈래의 보행로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의 은유 -실내에 광장 개념 도입 -실내의 관객집약적 공간 분리 -아크로폴리스와 흡사한 풍경 |
| 이중적 대조법 | -미술관의 원형+하이테크 요소 -원형 조각 광장의 기념비적이면서도 일상적인 분위기 -미술관이라는 확실한 느낌과 동시에 자연스런 미술관으로의 진입 -시각상의 촉과 실질적 촉의 이중성 | -이질감+친근감 -속세적인 것+종교적인 것 -가하확적인 것+자유스러운 것 -거친 것+매끈한 것 -옛것(의 느낌)+새것(의 느낌) |
| 플라쥬기법 | -추상적 형태의 플라쥬 -건축사에서 따온 단편들의 플라쥬 -스털링 자신의 건축작품의 플라쥬 -의미상, 도시 단편의 플라쥬 | -이중적 의미의 플라쥬 -허구의 플라쥬+사실적 플라쥬 -쌍을 이루는 플라쥬 |
| 일상적 미술관 | -예술의 일상생활로의 접근 -미술관의 기본전환 장소로서의 가능성 -예술의 오락적 측면 인정 | -관람자 스스로의 발견에 의한 예술적 체험 -일상적 재료 사용 |

4. 결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모던 건축의 양상을 띠는 제임스 스텔링의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과 한스 홀라인의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 건축 설계 과정에서 확장된 의미의 건축개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스튜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과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은 현 시대상황을 그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역사적 맥락 안에서 전통적 격식에 매이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표현한 미술관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인해 매우 일상적인 미술관이 되어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두 미술관 모두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보행자가 건물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관 건물군 내에 광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미술관을 작은 도시로서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두개의 미술관은 몇 개의 건물로 나누어져 건물군의 형태를 띄게 되었으며 플라주 기법이 그 구성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스털링은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에서 여러 단편들을 미술관의 원형 위에 추가적인 것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플라주 하였고, 홀라인은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 서로 다른 재료의 건물들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플라주하였다.

스털링과 홀라인은 두 미술관의 각 건물들을 통해 현대의 다의적 의미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중적 대조법이란 표현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스텔링은 과거와 현재, 역사와 기술의 대립과 공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련의 반대되는 개념을 한 공간에 공존케 함으로써 이중성의 모순과 매력을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였다. 홀라인은 이질적 형태와 이질적 마감재로 독립성을 강조하며 오브제의 쌍을 대립시키는 방법으로 이중적 대조법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방법들로 제임스 스텔링의 국립미술관 신관은 매우 자유스럽고 대중이 좋아하는 미술관으로 예술의 일상생활로의 침투를 가능케하였고, 한스 홀라인의 뮌헨글라드바하 시립미술관은 일상적인 미술관의 개념을 실현시켜 관람자 스스로에 의해 예술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참고문헌

1. 김원외, 서울 시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서울특별시, 1986
2.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1995
3. Jencks, Charles, 현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 태림문화사, 1991
4. Klotz, Heinrich, 현대건축론, 양동양 옮김, 기문당, 1994
5. Sudjic, Deyan, 현대건축가시리즈, 노란 포스터, 리차드 로저스, 제임스 스텔링, 김인철 역, 집문사, 1996
6. Futagawa, Yukio, GA Document 11, A.D.A. Edita Tokyo Co., Ltd., Tokyo, 1984
7. Pehnt, Wolfgang, Hans Hollein Museum in Monchengladbach, Fi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Frankfurt am Main, 1987
8. Rowe, Colin and Koetter, Fred, Collage City, The MIT Press, Cambridge, MA
9.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CD, Zane Publishing, Inc, U.S.A.

〈접수 : 1998. 1. 31〉